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  
김문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국내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변창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주류산업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환경과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환율하락, FTA 체결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이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주류소비 정체와 치열한 판매경쟁 속에서 그 어느때 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류규제강화, FTA 체결 가속화, 주세율 및 건강부담금 문제등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협회는 업계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당면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류산업 정책, 제도 및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주류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세율인상, 건강부담금부과, 주류광고금지등에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주문제해결을 위해 2007년도 주류규제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음주종합대책인 “파랑새 2010”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류규제 정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인도, 멕시코, EU등 세계 여러나라들과 동시

“ 다 사 다 난 했 던 희 망 찬 병 술 년 이 새 해 가 지 나 가 고 밤 았 습 니 다 ”



다발적으로 협상이 예상되어 FTA는 주류산업의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산업 이미지 제고 및 건전음주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류업계는 지난 97년부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내 알콜 의존자치료병원을 설립하여 알콜을 예방·치료·재활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One Stop System 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류업계의 활동사항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류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건전음주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술이 세계 속의 명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류업계는 하나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주류박람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술에 대한 소비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술이 세계 속의 명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주류업계의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